



강제환우란 닭을 인위적으로 털갈이시켜 일정기간 휴산하도록 한 뒤 다시 산란율이나 부화율을 향상시키는 기술로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**절수** : 절수기간은 계절, 품종 및 주령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, 대체로 봄과 가을에는 2~3일, 여름에는 3~4일, 겨울에는 1~3일 정도면 적당합니다. 절수기간 중에 폐사가 2~3% 이상 발생할 때는 급수를 재개합니다. 그러나 계속 물을 주면서 환우를 시켜도 환우 후의 산란능력에는 지장이 없으며, 오히려 환우기간의 폐사율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.
- **절식** : 일정기간 동안 절식(사료 급여 중단) 시킴으로써 닭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닭에게 주는 스트레스의 강도에 의해 절식일수가 좌우되는데, 품종 및 체중에 따라 4~7일 정도가 적당합니다. 계절에 따른 대체적인 절수와 절식일수 및 강제환우 개시 시 체중에 대한 적정체중 감소 비율은 에너지 소모가 적은 여름에는 절식기간을 길게 하고, 반대로 에너지 소모가 많은 겨울에는 짧게 해주어야 하는데, 대체로 강제환우 개시 전의 체중에 비하여 20~30% 정도로 감소될 때까지 절식시키는 것이 좋습니다.
- **점등** : 무창계사의 경우 점등 중지로 점등 시간을 인위적으로 단축시켜 환우를 촉진시키며, 유창계사의 경우 강제환우 개시 7일 전부터 24시간 점등 후 점등을 일시에 중단하여 스트레스를 줍니다.